

### A Question of Joy

In this, the last Sunday before Christmas....we're looking at the second "servant song" or poem from the prophet Isaiah ~ 700 BC. Last week in the first song, Isaiah 42....the prophet said that the coming servant would deal gently with the weak — 'a bruised reed He will not break.'

His mission was to overcome the idolatry for those who receive His service...In that He would bring spiritual light to the nations. This week Isaiah's prophecy builds on the work of the Servant as he focuses on two necessary qualities of the Servant to bring God's salvation to the world...His call & His triumph through suffering.

The Lord's great purpose is that we would know & experience great joy in the salvation the servant, Jesus Christ brings by virtue of His divine call & overcoming of trials.

In our broken lives.....in this broken world.....the temptation for us is to lose heart. It happens when we become overwhelmed with the trials of life....

when we focus on what's happening around us or to us, our outlook seems bright when things are going well...but when things go wrong we lose our joy. While we rightly rejoice in being able to meet more freely.....in being able to renew friendships face to face after 2 years of relative separation...I found myself asking the question, 'would I be equally joyful in the Lord if last week's announcement instead of further easing was lockdown 7?' while none among us wants ever to face that again.....while we rightly also grieve over trials..... Before us is God's challenge & encouragement as we see the Servant in His person & work with renewed clarity that we would delight in His salvation.

For any who don't yet know this Servant — as you hear this 700 BC prophecy, may God open your heart to receive His salvation with joy ....

### 기쁨의 질문.

성탄절 이전에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의 시를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 첫 노래인 이사야서 42 장에서 선지자는 말하기를, 앞으로 장차 올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심으로, 약한 자들을 온화하게 다루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종에 사명은, 그의 섬김을 받는 자들의 우상 숭배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이런 섬김에서 그는 열방에 영적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이번 주 이사야의 예언은 장차 나타날 종이 할 일에 초점을 두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가져올 자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해 말씀하고, 이는 그의 부르심과 고통을 통한 그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한 주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구원의 큰 기쁨을 알고 경험함에 있습니다.

이 죄악 되고 깨진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낙심케 하는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환란에 압도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 일이 잘 풀릴 때, 보통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2 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록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안에서 똑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 삶의 시련 가운데 슬퍼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도전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아직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700BC 에 기록된 이 예언서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의 문을 열어 그의 구원을 기쁨 가운데 받기를 소망합니다

## The Servant will be Called by God (1-3)

V1, 'Listen to me, O coastlands, and give attention, you peoples from afar.'

Just after the first servant song of last week Isaiah mentions the impact of the Servant's mission making for a new song to be sung from end of the earth....with similar places he mentions being the sea & the coastlands.

The inhabitants of those places are also (as it says here) 'peoples from afar.' For the whole world... That's a particular encouragement for us here now.....far away in time (>2700 years) & space 13 717 km.

God calls us to listen to what He's about to say through Isaiah — Particularly about the way He strengthens the Servant for God's task — His mission. V1b, 'The Lord called me from the womb, from the body of my mother He named my name.'

The prophecy points us to the incarnation — that God would set this Servant apart by name when He was still in the womb of his mother. Matt. 1:21, the angel of the Lord speaking to Joseph re Mary said,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The strength of the Servant's task from before His conception & confirmed when He was in the womb, would be bound up entirely in God's call on His life.....& continue by God's shaping of His life...

V2, 'He made my mouth like a sharp sword; in the shadow of His hand He hid me; He made me a polished arrow; in His quiver He hid me away.'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종. (1~3 절)**

*1절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종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땅끝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됨을 보았을 때, 이번 주 구절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섬에 대해 언급합니다.

오늘 구절에서 이 섬에 사는 자들을 “먼 곳에 사는 민족들”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격려되는 것이 우리 또한 여기에 언급된 자들과 같이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 먼 곳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종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주시는지에 대해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1 절 후반...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예언은 성육신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구별된 자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시는 사건을...마태복음 1:21 절에서 주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에 대해서 이같이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종이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잉태되기 전부터 시작되어, 그가 어미의 배 속에 있을 때 확정된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그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Here we see that though the prophecy mentions the sword & the arrow — we aren't to understand it as a military kind of strength but rather by the power of His speech

God's shaping, the servant's words would penetrate defences — pierce like a sword — to those near  
Penetrate like an arrow — to those far away

UK Bible teacher Rico Tice by way of warning said, “Lord Jesus will pierce you with His word....He loves you, it's for your good — but how piercing — how uncomfortable His words are.....” Sermon on the Mt.....love your enemies &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Now the Servant tells us what God would say to Him...V3, '(And He said to me,) “You are my Servant, Israel, in whom I will be glorified.” After writing about the great Servant as an individual ..... Here we see the Lord names His servant as Israel.

How are we to understand this.....that 'Israel' can somehow save itself? Not at all — the nation of Israel could never do that — rather than being the light to the nations they were meant to be.....they became like the nations in their idolatry ..... that brought God's judgement of the Babylonian exile.  
What we see is that this Servant would be the One that corporate Israel failed to be

The first reading from Isaiah 5:7 helps us understand .... the 'vineyard of the Lord of hosts is the house of Israel'...In John 15:1 Jesus said, “I am the true vine” The vine brings life to its branches.....Jesus fulfilled the vine who brings life to the branches — ie — to all those connected to him

The Servant's strength to succeed in the task of God's rescue mission where Israel failed would have God's guarantee!

이 예언에서 칼과 화살이 언급된다고 해서, 이 종의 힘을 군사적 힘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종의 말씀이, 칼과 같이 마음을 찌르며, 화살과 같이 멀리 날아가 마음을 관통하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Rico Tice 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말씀으로 찌르실 것이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유익을 위함이다...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말씀을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게 한다.” 그 예로 산상 설교와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며,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위대한 종을 개인의 의미로 말씀한 후에,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서는 그의 종을 “이스라엘”로 언급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아, 이에 합당하게 살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바벨론 왕국의 공격으로 멸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이사야 5:7 절은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요한복음 15:1 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참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덩굴은 나뭇가지에 생명을 붙여넣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연결된 나무에 생명을 붙여넣으심으로 덩굴로써 사명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 구원의 임무를, 이 종은 하나님의 보증 가운데 분명히 행할 것입니다.

That means it would be impossible for the Servant to fail....certain that He would bring God the glory..... Though the path to the Servant's success would seem like failure...Even & remarkably by His own assessment.....

### The Servant will Overcome Suffering (4-8)

#### • From Futility to Faith (4-6)

V4, 'But I said, "I have laboured in vain; I have spent my strength for nothing and vanity..."'

The middle section of the passage is a conversation between the Servant and the Lord.... In response to the Lord telling His servant He would bring Him glory.....the Servant expresses His frustration in saying his work was in vain & that he'd 'spent his strength for nothing and vanity'

The word translated, 'vanity' conveys of the futility of pouring effort into something only to see it disappear before your eyes — in fact the word literally means, 'vapour' or 'mist.'

We think of this fulfilment when the Lord Jesus in Matthew 11:20 we're told 'began to denounce the cities where most of His mighty works had been done, because they did not repent.' Or after > 3 years of training & serving His disciples, one betrayed Him, another denied Him & the rest deserted Him.

Even Jesus would experience the temptation to think His perfect work had all been in vain.

But His motivation wouldn't depend on immediate results, as we see the Servant immediately turn from falling into the settled belief that frustration = God couldn't be trusted... v4b, "surely my right is with the Lord, and my recompense with my God."

비록 이 종의 성공이 실패처럼 보일 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종이 실패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확실한 영광을 가져올 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고통을 이겨낼 종 (4~8 절)

"그러나 나는 '내가 공연히 수고하였으며 쓸데없이 내 힘을 다 쏟았다.'라고 말하였다." 현대인의 성경.

오늘 구절의 중반은 종과 주님과 대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종이 그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의 응답으로, 이 종은 자신이 공연히 수고하였고 쓸데없이 자신의 힘을 다 쏟았다 말함으로 좌절감을 표출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단어는 어떤 것에 노력을 쏟아붓지만 그 노력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허무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증발되어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20 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런 모습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우리는 또한 이런 허무함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봅니다... 3년이라는 훈련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배신하고, 부인했으며, 그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의 완전하신 사역이, 모두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즉각적인 결과에 의존하며 흔들리는 분이 아니셨음을 보게 됩니다.

4 절 후반 "그러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The Servant speaks the truth to Himself that He has God's full authority & reward coming for His faithfulness & now reminds Himself of more truth relating to His purpose....v5b, 'to bring Jacob back to Him; and that Israel might be gathered to Him'

The Servant would triumph in regathering God's old covenant people.... 'Jacob' aka 'Israel'. But even more than that.....The Lord speaks to the Servant to say, v6, "It is too light a thing that you should be my

*servant to raise up the tribes of Jacob and to bring back the preserved of Israel; I will make you as a light to the nations, that my salvation may reach to the end of the earth.”*

Here the Lord tells His Servant that His mission of restoring Israel is a small matter compared to the global task of bringing His salvation to the end of the earth. This has been called ‘the great commission of the OT.’ God’s word to the Servant is that it is a minor thing He will do in regathering His OC people.....when compared to bring spiritual light to the nations that is His salvation to the end of the earth.

While only the Lord knows how many true believers there are among them.....those who call themselves Christians had the highest total numbers cf. any other religion worldwide at more than 2.54 billion in 2021 ~ 32.5% of the world’s population. A report published just over 1 year ago by the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at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has projected that by 2050 it will be 35%

That’s at the current rate of increase. These statistics in some way — testify to Isaiah’s prophecy coming true. The Servant Has triumphed.....His mission continues to succeed to this day — because He overcame the initial discouragements & feelings of vanity by faith.

But its beginning would not only see a time where He would experience a sense of futility but that His suffering would be even more pronounced as Isaiah not only calls the

- From Hatred to Honour (7)

Servant....v7, ‘...the Redeemer of Israel and His Holy One,’ but also ... ‘one deeply despised, abhorred by the nation, the servant of rulers;’ 53:3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 he was despised and we esteemed him not’

여기서 좋은, 자기 자신의 진실에 대해 말씀 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신실 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와 상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그의 목적에 대한 진리를 5 절에서 나타냅니다... 5 절 중반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새번역)

이 좋은 하나님 옛 언약의 백성을 다시 모으는 데에 있어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6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네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는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의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세계 땅 끝까지 그의 구원을 미치게 하여, 이들에게 영적 빛을 비추는 일에 비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누가 참된 신자인지 아시지만, 이런 맥락에서 현 통계를 보면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임을 보게 됩니다... 2021 년도에 세계 인구에 32.5%인 25 억 명의 사람이 기독교 인이라 합니다. 불과 1 년 전에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2050 년도쯤에는 전 세계 인구의 35%가 기독교인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런 통계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참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는 승리하셨습니다...그리고 그의 사명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됩니다...왜냐하면 그는 처음의 낙담함과 공허함을 믿음으로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7 절 초반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사야 53:3 절에서도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In John 15:18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the world hates you, keep in mind that it hated me first."

The leaders of the nation out of jealousy hated Jesus so much that they handed him over to be crucified....fulfilling this aspect of Isaiah's prophecy. In God's plan it was all part of shaping Jesus to be the perfect Servant.....perfectly sympathetic to all the reeds bruised by the sin & suffering of this world.

Hebrews 4:15,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sympathis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in every respect has been tempted as we are, yet without sin.'

Though hated by the nation....in God's scheme....in time He would be greatly honoured. To this Redeemer notice what the Lord says to encourage Him, v7b, "Kings shall see and arise; princes, and they shall prostrate themselves; because of the Lord, who is faithful, the Holy One of Israel, who has chosen you.'

### The Servant will bring Saving Grace to the World (8-13)

V8, 'Thus says the Lord: "In a time of favour I have answered you; in a day of salvation I have helped you; I will keep you and give you as a covenant to the people, to establish the land, to apportion the desolate heritages, saying to the prisoners, 'Come out,' to those who are in darkness, 'Appear.'

In light of the Servant triumphing over suffering to be honoured....The Lord would give Him as a covenant...ie as a promise to the people. Isaiah had also mentioned this aspect of the Servant's role in his first song.

Noti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y of salvation & the Lord's gift of the Servant as a covenant to the people. The day of salvation would be tied to the covenant or promise of salvation of the Servant.

요한복음 15:18 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가 이같이 말씀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지도자들은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증오하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이런 증오는 이사야의 예언을 또한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완전한 종으로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며, 이는 죄와 이 세상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인 우리를 완전히 동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15 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증오했으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는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7 절 후반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님은 그의 종을 격려합니다.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 이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줄 종 (8~13)

8 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고난을 이기고 영화롭게 되는 종에 비추어 보아, 주님께서는 그를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즉 그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부분은 그 첫 번째 노래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구원의 날과 주님이 종의 언약을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것의 관계에 주목해 보십시오. 구원의 날은 종의 구원의 언약이나 약속과 결부된 것을 보게 됩니다.

The remainder of the passage pictures what the salvation from the divine pledge through the Servant would look like....

(end of v8) 'to establish the land, to apportion the desolate heritages, saying to the prisoners, 'Come out,' to those who are in darkness, 'Appear.' 'They shall feed along the ways; on all bare heights shall be their pasture; v10, 'They shall not hunger or thirst,Neither scorching wind nor sun shall strike them,For He who has pity on them will lead them, and by springs of water will guide them. V11 And I will make all my mountains a road, and my highways shall be raised up.'

This is poetic imagery of widespread renewal....liberation, protection & provision with overtones of a good shepherd leading His sheep.

Jesus read Isaiah 61:1-2 in the synagogue in Nazareth ... 'He has sent me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oppressed,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ur.'

The prophecy is that the Servant will bring this saving grace to the world...

v12, 'Behold, these shall come from afar, and behold, these from the north and from the west, And these from the land of Syene.'

Those who receive the Servant's salvation will come from far away — even from 'Syene' that commentators suggest is an area in China. China today is second only to Nepal as being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percentage growth rate of Christianity. One site estimated ~ 10% population .... that would mean > 120 million Christians

Isaiah's prophecy is continuing to unfold in our day...even as those who receive God's promise of salvation through the Servant are moved to wholehearted praise...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맹세가 이 종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말씀합니다.

8 절 후반 ~ 11 절 “그 땅을 회복하여 황무지가 되었던 그 곳을 그들이 다시 소유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나오라고 말할 것이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푸른 풀밭이나 산언덕에서 풀을 뜯어먹는 양과 같아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따가운 햇볕과 사막의 열풍이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샘물 곁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산들을 가로지르는 대로를 만들 것이니”

이 시적 언어에는 자신의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자유를 누리며, 보호와 공급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렛에 있는 시나고그에서 이사야서 61:1~2 절 말씀을 읽으십니다 ... “주 여호와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이 예언의 내용은 그 종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가져다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2 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 님 땅에서 오리라”

이 구절은 먼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며 “시님” 땅에서 오는 사람조차 구원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시님 땅”은 지금의 중국일 것이라 말합니다. 중국은 지금 네팔 다음으로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며, 예상하기를 인구의 10%가 기독교 인일 것이라 예측합니다. 이는 1200 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종을 통해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 마음이 감동되어 전심으로 그를 찬양함으로 이런 이사야의 예언을 오늘날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 Know the Servant for Salvation's Joy

v13, 'Sing for joy, O heavens, and exult O earth; break forth, O mountains into singing! For the Lord has comforted His people and will have compassion His afflicted.'

As we live in our fallen world...as we experience its brokenness...as we can't help at times let the spiritual darkness of our own selfish ways — our sin — dominate our lives & bring slavery to them.....

The word of God implores us to know the Servant  
To behold the One who was called & shaped to be the perfect Servant  
To perceive the One who overcame suffering to be the Saviour  
To know this One who knew no sin, who in His sacrifice God made to be sin so all who trust Him would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2 Cor 5:21)

The Servant is also the Lord who calls us to know Him...to receive His saving grace & in that to know the joy that outshines the gloom of circumstance.

### 구원의 기쁨을 위해 그 종을 알다.

13 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에 우리는 이 가운데 낙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종을 알라고 간청합니다.

온전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형상된 자를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신 분을 구주로 인식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후 5:21)

이 종은 또한 우리에게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암울한 현실을 이겨내는 기쁨을 알도록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